

학평·모평 점검으로 수시·정시 빨리 선택해야

수능 200일 앞...3학년 1학기 비교과 활동 부족해 내신 영향력 커질 듯 상위권, 오답노트 통해 실수 줄이고 중위권은 기본·예제문제 반복학습

‘코로나19’ 여파로 학교에 가지 못한 지 77일이나 됐지만 대입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대부분 수험생이 입시전략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태지만 18일로 올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3일 예정)의 디데이가 2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면서 고3 학생들은 예정대로 20일 등교할 가능성이 크다. 석달 늦었지만 올해 대학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와 모의고사 등 중요시험 공부법을 통해 다가오는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 2학년까지 내신 점검 필수...수·정시 지원 빨리 정해야

우선 입시전문가들은 올해 고3 수험생은 대입에서 수시 학교생활기록부(학성부) 전형에 준비할지, 수능 학습에 본격 매진할지 최대한 빨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예정대로 고3 학생들이 20일 등교하면 여름방학 전까지 두 달 조금 넘는 시간에 중요한 시험을 다섯

차례나 치러야 한다. 등교 다음날 경기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6월 초 중간고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주관 6월 모의평가, 7월22일 인천교육청 주관 학평, 7월말 8월초 기말고사까지 숨가쁘게 시험이 이어진다.

수시 학생부전형은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등교 후 비교과 활동보다는 목표한 내신 등급을 받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 등교 개학 후 보통 2~3개월 동안 내신 시험 2회, 모의고사 3회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학평회, 동아리 활동 등 비교과 활동을 보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입시전문가들은 “온라인 개학의 영향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3학년 1학기 비교과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수시 학생부전형에서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평과 모의평가를 통해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점검해 보고 수·정시 지원에 대한 유효리를 따져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시험은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 주관으로 6월18일 실시하는 6월 모의평가다. 이 시험은

처음으로 재학생과 재수생이 함께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으로 수·정시 지원에 결정적 기준이 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본인의 내신 평균등급은 사실상 2학년까지 성적으로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라며 “2학년까지 내신 평균등급이 목표대학의 내신 지원선에 미치지 못한다면 수시 학생부전형보다는 수능 위주 정시전형으로 입시전략을 빠르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진도 학습 빠르게 마무리...과목별 학습계획 세심히 짜야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6월에서 8월까지를 1차 학습 기간으로 잡고 진도 학습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9~11월 3개월 동안은 2차 학습 마무리와 함께 실천연습 위주의 학습이 필요하다.

1차 학습기간에도 주 1회 실천 모의고사를 꾸준히 풀면서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3~4월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치러지지 않으면서 시간관리 훈련 등 모의고사 학습이 부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목별 학습계획을 세심하게 짜야 한다. 특히 올해는 탐구영역 학습에서 평소와 다른 학습패턴이 필요하다. 보통 탐구영역은 여름방학 동안 집중 학

습해 성적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는 개학 연기로 여름방학이 2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여름방학 때 탐구영역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탐구영역 학습을 여름방학으로 마무리보다 이달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차 학습 기간 동안 1~2등급 상위권 학생들은 오답노트, 약점노트 등을 통해 실수를 줄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등급 이하 중위권 학생들은 기본·예제 문제 반복학습을 통해 개념학습을 완벽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수학 학습에 보다 열중해야 한다. 올해 수능은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적용되는 시험이다. 자연계열은 수험생이 어려워하던 기하와 벡터가 출제에서 제외되고 삼각함수와 사인·코사인 법칙 등이 추가됐다. 인문계열은 수열의 극한과 지수, 로그, 삼각함수 등이 추가됐다.

절대평가인 영어 학습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019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은 5.3%에 그쳤고, 2020학년도 수능 역시 7.4%로 상당히 난이도 있게 출제됐다.

국어 또한 2019학년도 수능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84점에 그칠 정도로 어렵게 나왔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학습이 중요하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여대, 신중년 일자리 교육 입지 경력형 일자리 사업 선정 등 ‘3관왕’

광주여자대학교가 올해 들어 ‘신중년’ 일자리 관련 사업 공모에서 3개 사업이나 따내며 신중년 일자리 지원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19일 광주여대(총장 이선재)에 따르면 최근 ‘2020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됐다. 이로써 광주여대는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빛고를 50+ 일자리 지원사업’ 등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신중년 관련 사업 3개를 추진, 신중년의 사회활동과 일자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광산구 주관으로 실시되며,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신중년(만50~70세)에게 지역 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광주여대는 이 사업에서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 매칭 및 활동지원, 참여자 직무교육, 취업지원 컨설팅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관리하는 운영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내용은 미용 경력을 갖춘 신중년을 채용해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요양병원 입원 환자 등)에게 찾아가는 미용복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책임자 임귀자 교수는 “광주여대의 특장점인 미용학과와 사회복지학과와 협동, 교수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신중년들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재학생 글쓰기 능력향상 ‘비대면 1:1 글쓰기 컨설팅’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재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 ‘1:1 글쓰기 컨설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1:1 글쓰기 컨설팅’ 영역은 A4용지 2매 분량의 자기소개서와 학술적 글쓰기, 영화·독서 감상문 등이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학교 교육누리시스템과 교양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원고는 광주대 박순원, 박일우 교수 등 4명의 전문 담당운영팀이 직접 컨설팅하며,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보안 및 수정 사항 내용을 직접 상담한다. 담당운영팀과 컨설팅 일자 및 시간은 참여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

광주대 박진영 교양교육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컨설팅이 진행되지만,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제한적 대면수업 대비 정문서 모든 출입자 발열검사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가 18일부터 일부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에 대한 제한적 대면수업에 들어가면서 이날 오전 8시부터 정문 안심발열검사소에서 모든 출입자의 마스크착용 여부와 발열검사를 실시했다.

승용차와 택시 등 차량 이용자들은 드라이브루 체크센터에서 발열검사와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한 후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꼼꼼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벌였다. <호남대 제공>



광주 남암학원, 전국 사립학교 최초 행정직노조 단체 협약

근무조건 개선 등 51개 조항 합의

광주 사립학교 법인 남암학원(동아여자중·고등학교)과 행정직 노동조합원들이 전국 사립학교 최초로 단체 협약을 맺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최근 동아고에서 학교법인 남암학원과 ‘행정직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근무 조건 개선, 조직 문화 혁신 등을 위한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암학원은 2018년 4월 전국 사립학교 중 처음으로 행정직 노조를 꾸렸다. 조합원 7명을 대표해 노조가 2018년 7월부터 이날까지 법인 측과 18차례 교

섭을 벌여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사립학교 행정직 중 최하다. 남암학원과 노조는 ▲조합 활동 보장-편의 제공 ▲교육시간 보장 ▲투명·공정한 인사 ▲부담 징계와 해고 방지 ▲민주적 조직 문화 개선 ▲노사협의회 개최 등 총 51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남암학원은 법인 이사장과 이사, 법인 실장 등 3명이 지난 2016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됐고, 부정하게 채용된 교사 6명의 임용이 취소되는 등 인사 비리로 혼란을 치렀다. 사학분쟁조정위는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하고, 1기 임시 이사진을 파견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서 2기 임시 이사진을 파견해 운영 중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교육청, 6월부터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시범 운영

휴대전화에 교실 전화번호 지정

광주교육청은 교육 활동 침해 예방과 교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오는 6월부터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는 교원 개인 휴대전화에 학교(교실) 전화번호를 부여해 학생, 학부모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한다. 휴대전화 앱을 통해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해 언제 어디서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고, 학교(교실) 번호를 수발신 번호로 지정해 학생과 학부모와 상담할 수 있다. 시 교육청은 이달 초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수

조사를 한 결과, 신청 교원 3023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하고, 만족도와 활용도 분석을 거쳐 전체 교원에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연내 교원 생활 보호 관련 조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광주시 교원과 교육 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교육은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일상적 소통을 기반으로 한다는 원칙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며 “안심번호 서비스는 선생님들의 교원과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교육적 소통도 병행하는 징검다리라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